

민주 “尹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시 농민 민생 책임져야”

“양곡법, 취지 훼손 않는 수정안은 적극 검토”

“안전운임제, 개선은 처리...계약 요소는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1월 3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0만 농민에 대한 민생과 앞으로 다칠 쌀값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라도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급적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법이 실용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며 “다만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민주당은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게이트키퍼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며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방송법인데 내달 2일에 60일 기일이 도래한다. 안전운임제는 내달 8일이 기일이요 간호법과 의료법은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5일 상임위 의결로 처리하겠다고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표준운임제 등과 관련한 다른 수정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더 나은 제도적 개선이 있다면 처리하되 일반적으로 사업주 의견만을 반영해 처벌조항을 없애겠다는 계약적 요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난방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민층,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그와 관련된 추경안 처리, 또 황제세적 성격 갖고 있는 고유가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에 대한 부담금 혹은 자발적 기업 기금 등에 대해 전향적 대책을 가급적 빨리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그때 황제세와 관련된 입법을 별도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3+3 회의에 대해서는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보고 있고 특별한 진전도 없다”며 “이번주 내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면 원내대표 회동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합의 가능한 부분을 부분 처리하든지 택일해서 마무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동포청과 국가보훈부 승격, 이 두 사안은 합의됐기 때문에 우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고 여성가족부 관련은 현재 여야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여가부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것을 미루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는데 성안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여당이나 정의당 등 관련된 운동 본부와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 관련 언박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옛그제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경북 지역의 32세대인가 36세대의 아파트형 주택을 고가로 매입해놓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걸 나 같으면 안 산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이게 웬 풍가루 정부지 싶었다”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분양가 기준 절반,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

입하지 않으면 건설사의 모델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출산 문제와 연관해 결혼을 앞둔 부부나 혹은 자녀가 1~2명인 신혼부부 가구에 좀 더 과격적으로 임대 주택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이슬기자

민주 교육연구원 발대식...“尹 정권 탄압에서 이재명 지켜야”

이재명 “당원 역량 강화, 당 강화하는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31일 “민주당의 역량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당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당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연구원 발대식에서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일”이라며 “중앙당

연구원 뿐만 아니라 시도당의 연구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대식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맞서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구원장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민주당이다. 부원장들이 모두 다

이재명”이라며 “민주당을 사수하고 당 대표를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이 교육연구원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니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탄압이고 검찰 정권의 폭거”라며 “야당 대표와 야당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준동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당 당원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당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당의 이념과 철학을 공고히 하고, 민주당이 하나 되는 교육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압은 우리를 하나로 단결시킨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화시킬 것”이라며 “더욱 가혹한 탄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 당원들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교육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순천시-조수진 국회의원, 시정 현안 공유



순천시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방문을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국민의힘 조수진(비례) 의원이 최근 순천을 방문해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순천 도착 첫 일정으로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순천시 현안 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의 건의를 들었다.

시는 현안 사업으로 여차만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정원화 프로젝트 2건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신진교 재가설 공사 외 2건 등 총 3

건의 37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와 함께 정원박람회 개막식 윤석열 대통령 참석도 요청했다.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사업 중 하나인 도시정원화 프로젝트는 순천만-국가정원-도시를 잇는 거대 정원 축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정원 도시 표준모델(확장형)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8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여차만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은 순천과 보성 해양자산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여차만 일대 2000억 원의 국비를 들여 갯벌습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순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에 해당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해 조수진 의원이 힘을 실어준 웹툰센터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와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지원한 강변로 그린아일랜드 등의 사업 현장을 둘러 보았다.

순천=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